개콘팀 사회 흥 절로… 싸이와 함께 7만명 말춤 여의도 들썩

‘국민 대통합’ 축제 한마당으로 치러진 취임식

예포 60초간 21발… 국민대표 30명과 단상 올라

‘나의 살던 고향’ 울려퍼지며 李 전대통령 떠나보내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은 7만여 국민이 참여한 가운데 ‘국민대통합’ 축제의 한마당으로 치러졌다.

엄숙한 국가 행사가 아닌 국민을 중심에 둔,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박 대통령의 국정비전을 구현하자는 의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명난 식전 행사=식전 행사는 김덕수 사물놀이패의 길놀이로 시작됐다. 이어 김영임 명창이 민요합창단과 함께 ‘쾌지나 칭칭나네’를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맞춰 개사한 노래를 불렀다. 곧이어 ‘개그콘서트’ 팀이 MC로 등장해 행사 진행을 이끌었다. 이 공연은 전 지역과 계층, 세대가 공감하며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로 기획됐다. 각 시대를 대표하는 다양한 노래가 삽입된 국민뮤지컬 ‘행복한 세상’이 펼쳐졌다. 현재 시대를 상징하는 장면은 가수 싸이가 표현했다. 싸이는 ‘챔피언’에 이어 자신의 최대 히트곡인 ‘강남 스타일’을 개사해 말춤과 함께 선보였으며 이에 7만여 참석자들은 모두 일어나 말춤을 따라하며 공연을 즐겼다.

◇전직 대통령 참여=이명박 전 대통령 내외는 10시50분께 행사장에 도착했다. 이에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입장했고,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도 자리를 함께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건강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고, 고 노무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도 건강 때문에 불참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3부 요인과 외교사절 등 내외빈 참석=상주대사 102명과 비상주 대사 26명 등 총 145명의 주한 외교사절과 세계 각국에서 파견한 경축 사절단이 내외빈석 자리를 메웠다. 강창희 국회의장과 양승태 대법원장 등 3부 요인과 각 당 지도부, 여야 국회의원도 자리를 함께했다. 지난해 대선에서 박 대통령과 경쟁한 문재인 민주통합당 전 후보는 불참했고,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예포 21발로 새정부 출범 알려=박 대통령이 오전 11시 정각 입장하면서 취임식 본행사가 시작됐다. 본행사는 식전행사와는 달리 엄숙하게 진행됐다. 박 대통령은 국민대표 30인과 함께 단상에 올랐으며 이 전 대통령 내외를 비롯한 전직 대통령, 정상급 외교사절, 3부 요인과 차례로 악수를 했다. 애국가는 소프라노 조수미와 바리톤 최현수가 지역과 계층, 세대를 넘어 구성된 300명의 국민합창단과 함께 불렀다. 연주는 민간 오케스트라 1호 코리안심포니(최희준 지휘)가 맡았다.

식사는 김황식 국무총리가 맡았으며 박 대통령은 취임선서 후 군악대와 의장대의 행진과 ‘받들어 총’ 경례를 받고 거수경례로 답했다. 예포는 대통령을 상징하는 21발을 3초에 한 발씩 60초 동안 쏘아 올리며 새 정부의 출범을 알렸다.

박 대통령은 20분 정도 취임사를 했으며 객석으로부터 30여 차례 박수를 받았다. 취임사가 마무리되자 축하무대가 또 펼쳐졌다. 박 대통령은 이어 주요 귀빈들과 인사를 나눈 뒤 ‘나의 살던 고향’이 연주되는 가운데 단상에서 내려와 이 전 대통령 내외를 떠나보냈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박근혜 제18대 대통령 취임식 참석자 7만여명이 국회 앞마당을 가득 메우고 있다. /연합뉴스

◇박 대통령 국민에게 답례한 뒤 퇴장=이 전 대통령 내외를 보낸 박 대통령은 단상에 다시 오르지 않고 국회 앞마당 중앙 통로를 통해 손을 흔들며 행진했다. 이어 국회 앞마당 중간의 분수대에 원형으로 마련된 분수대무대에 올라가 환호하는 참석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답례했다. 박 대통령이 행진하는 동안에는 대선 기간 자신이 직접 부른 노래 ‘행복을 주는 사람’이 흘러나왔다. 박 대통령은 국회 정문을 빠져나온 뒤에는 국산 리무진 승용차에 올라타고 카퍼레이드를 펼쳤다. 박 대통령은 지붕의 구멍을 통해 상체를 내밀고 인도의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초청장 없는 시민들 대형 스크린 앞에서 환호

취임식 이모저모

대구·구미 축제 분위기

경찰 7000명 삼엄한 경비

행사장 주변 1인 시위도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린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주변에는 아침부터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다.

공식 초청을 받은 시민들은 영하의 날씨 속에서도 질서 있게 국회 주변에서 기다리다가 주최 측 진행에 맞춰 보안검색 등 절차를 거친 뒤 행사장에 입장했다. 초청장을 받지 못했음에도 지방에서부터 여의도를 찾은 시민들이 많았으며 한결같이 새 정부의 출범을 축하했다.

○…경북 구미에서 9살 난 아들, 친정어머니와 함께 온 장혜경(39·여)씨는 “아이에게 취임식을 보여주고 싶어서 같이 왔다”면서 “새 정부에서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고 교육비가 많이 안 들었으면 좋겠다”며 미소를 지었다.

대전에서 올라온 회사원 박찬두(58)씨는 “국민 모두 희망을 품고 응원할 테니 반드시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길 빈다”고 전했다.

○…국회 정문까지 왔지만 초청장이 없어 취임식장에 입장하지 못한 시민들은 국회 정문에서 100m 가량 떨어진 곳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통해 취임식을 지켜봤다. 오전 11시에 임박해 “지금 박 대통령님이 도착하셨습니다”라는 장내 행사 진행자의 음성이 흘러나오고 이어 차량에서 하차하는 박 대통령의 모습이 화면에 잡히자 시민들은 손뼉을 치며 환호했다.

○…이날 행사장 주변에서는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 조합원 10여명이 곳곳에 흩어져 쌍용차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지역 내 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반대하며 1인 시위에 나선 이들도 있었다. 윤종우 중부대캠퍼스이전반대대책위위원장은 “지역 대학이 수도권으로 이전하면 지역 경제가 어려워진다”며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날 국회의사당 주요 출입구, 인근 건물, 지하철 역 등에는 경찰 7000명이 이른 새벽부터 배치돼 삼엄한 경비를 펼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경찰은 서강대교 남단에서 여의2교 사이 1.5㎞ 구간에 2m 간격으로 병력을 3중으로 배치하는 한편 폴리스라인을 설치해 초청장을 소지한 사람 외에는 국회 출입을 통제했다.

○…대구와 경북 구미에서는 다양한 축하 행사가 열렸다. 대구는 박 대통령의 출생지이자 ‘정치적 고향’이고, 구미는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태어난 곳이다.

이날 구미지역 곳곳에 ‘구미의 딸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축하합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 축하 분위기가 물씬 풍겼다.

대구시는 주요 거리 30여곳과 공공기관 청사 30여곳에 가로기와 축하 현수막을 내걸어 대통령 취임을 축하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대통령님 딱 내스타일”

국민대표 초청 광주출신 ‘리틀 싸이’ 황민우

“박근혜 대통령님 취임식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

‘리틀 싸이’황민우(8·사진)군이 제 18대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에 국민대표 30인 중 한명으로 단상에 올랐다.

청와대의 요청으로 한복을 입은 황군은 “대통령님이 ‘널 잘 안다. 머리 모양도 그렇고 싸이와 많이 닮았다’고 했다”며 “대통령님 짱”이라고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다.

동선이 엇갈려 가수 싸이와는 만날 수 없었지만 황군도 싸이 못지 않은 ‘월드스타’로 세계를 누비고 있다. 미국·베트남·중국·필리핀·대만·말레이시아에 이어 이날도 공연과 방송출연을 위해 싱가폴로 떠났다.

‘리틀 싸이‘를 넘어 ‘가수’가 되기 위해 디지털 싱글도 발매할 예정. 3월 초 신곡 ‘show time’의 발표를 앞두고 황군은 노래·안무 연습과 뮤직비디오 촬영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朴대통령 33년만에 靑 입성 “감회 새롭다”

첫 국정업무… 신임 총리 임명동의안 재가

25일 취임식을 마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980년 청와대를 떠난 지 33년 만에 ‘주인’으로 다시 청와대에 입성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청운효자동 주민들의 환영행사에서 주민대표와 대화를 하면서 “감회가 새롭다. 감회가 깊다”고 33년 만의 청와대 입성 소회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주민들로부터 전나무 묘목이 담긴 화분을 선물로 받았다. 화분의 흙은 지난해 대선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11월27일 대전역 광장 유세에서 전국 17개 시도의 흙을 섞는 합토식에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화분을 주신 것은 통합의 의미”라며 “그 뜻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태극기를 흔드는 주민들을 뒤로하고 청와대 본관으로 향했고, 본관 앞에는 비서실 직원들이 늘어서 박수를 치며 청와대에 입성하는 박 대통령을 환영했다.

꽃다발을 선물로 받은 박 대통령은 본관 앞에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 김행 대변인 내정자, 이정현 정무수석 내정자, 이남기 홍보수석 내정자,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내정자 등 새로운 청와대 비서진과 차례로 악수하고서 본관에 첫발을 디뎠다.

박 대통령이 본관에 들어설 때 김 실장 내정자와 박흥렬 경호실장 내정자, 허태열 비서실장 내정자 등 실장급 3명이 뒤를 따랐다. 박 대통령은 곧바로 2층 집무실로 올라가 청와대에서 대통령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했다.

박 대통령은 전자결재를 통해 정홍원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가하고, 허태열 비서실장 내정자와 박흥렬 경호실장 내정자, 이정현 정무수석 등 수석비서관 인사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50년 전통 대를잇는 한의원

북경당 한의원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 코피 해결

비만클리닉

한의학박사 박상준 원장
동신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진료문의 062)227-7575

진료시간
평 일 : 오전9시~오전7시
토요일 : 오전9시~오전4시
일요일휴진,공휴일은 오전진료

국가공인 (2010. 11.24 교과부 제2010-1호)

한자·한문지도사

자격연수생 모집

국가공인한자·한문지도자사자격등급 (특급·1급·2급·3급)

★모집기간 : 2013년 2월 4일(월) ~ 2013년 3월 7일(목)
★연수기간 : 2013년 3월 7일(목) ~ 2013년 8월 17일(금) (6개월/24주/96시간)
★수업시간 : 오전반 09:10~12:40 / 오후반 14:00~17:30

과정명	개강일시	수업과목	수업시간	모집인원
아동지도사	3.7(목)오전	• 한자의 기본원리 • 한자 1000자 지도	64시간	30명
기초(2,3급)	3.9(토)오전	• 부수해설·사자소학 • 명심보감·추구	1단계 96시간	30명
심화(1급)	3.8(금)오전	• 소학·대학 • 중용·격몽요결	1단계 96시간	30명
특급(훈장)	3.6(수)오전	• 논어·맹자 • 고문진보	1단계 96시간	30명

★유능한 강사진·저렴한 수강비 등 고객만족 수강하세요

수료·자격취득후 특전
• 방과후 학교 한자·한문지도강사·한문학원 개설
• 각 대학 평생교육원·학원·시·구청·복지관 한자지도강사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3급~사범)자격취득기회

▶수 강 료 : 350,000원/농협 175375-56-065137(이종순)
▶수강신청 및 접수처 : (사)한자교육 진흥회 광주·전남본부
문의상담 : ☎062)366-9666, 011-607-6292

국가공인 자격관리·운영기관
(사)한자교육진흥회 주관
한국한자,한문지도사 연수원 시행
(광주시 서구 농성동 633-28 , 건강관리협회부근)
E메일 : hanja-exam@hanmail.net

운명철학

人間의 길흉화복이라는 것이 과연 선천적으로 타고나는것일까? 또는 운명적 점지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후천적 노력과 기회로 강호의 영웅호걸이 탄생되고, 21세기 현대문명아래서도 죽한끼 제대로 못먹고,신음하는 노후 인생과 빈명들은 정녕 노력을안해서였을까?

여기서 엄청난 사실을 발견할수 있다!
자신의 분수(운명)을 모르고, 분마처럼 날뛰면서 청춘과 일생을 허생 낭사한 결과는 어떠한가? 두번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인생의 흐름에서 참으로 선천과 운명적으로 부여받은 스스로의 복덕과 관운 재운 부부 자식 학운 건강등이 자신의 숙명관에 어떻게 배열되 있는지 참고점검 해보는 것이 지혜있는 삶의 방법입니다.

※단 맞지 않으면 무조건 무료
중국, 대만, 대한민국 자미두수 대가!

경천동지할 비술인(천문 자미두수)로 수십년을 요달한 경지에서 인생길을 통쾌하게 안내함. 역술과 풍수지리 참선의 길 기초부터 무료강의 무료
개인지도 자격제한 없음(무속인, 역술인 환영)

감정강의장소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 95-2
(광주댐 상류 소쇄원 주차장 아래 하천변)
철학연수원(진짜곰탕집)

TEL 061-383-7222 HP 010-4178-8830
강 사 柳無山居士

국/가/공/인
한문지도사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생 모집

❶ 연수일정(2013년 제10기)
• 개강일시 : 2012. 3. 4(월) 기초주간 14:00 / 기초야간 19:00
• 개강장소 :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3. 1. 21(월) ~ 2013. 2. 28(목)
• 수업기간 : 2012. 3. 4(월) ~ 2013. 6.17(금) (총 90시간)
• 수 강 료 : ₩360,000
● 모집인원 : 기초반 주간반: 30명 / 기초반 야간반: 30명
※ 기초반 수료자는 자동적으로 다음 학기에 2단계 심화과정으로 진급함
● 수업시간 : 매주 월요일, 금요일
- 주간반 14:00~17:00
- 야간반 18:00~21:00
● 수료 후 특전
• 기초단계 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발급 수료증 수여
• 1,2단계(기초, 심화) 수료시 한문지도사 자격증 2개 동시 취득 기회 부여
① (사)한국국공립대학 평생교육원협의회장 발급 한문지도사(민간자격)
② 국가공인 기관장 발급 한문지도사(국가공인자격)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 급수 취득 기회 부여
•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한문학원 개설 가능
• 각급학교 방과후학교 강사 추천

❷ 원서교부 및 접수처(토,일 공휴일 휴무)
• 전 화 (062)530-3873~3876
담당교수 H.P 010-2611-1171, 011-9712-1378
• 광주은행: 074-107-004114 (예금주: 전남대 평생교육원)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CENTER
http : //sle.jne.go.kr